

# 전남방언에 나타난 어두경음화\*

위진

## 〈목 차〉

1. 머리말
2. 어두경음화의 발생과 변화과정
3. 어두경음화의 음운론적 환경
4. 맺음말

## 1. 머리말

어두경음화는 국어사에서는 물론 현재 전남방언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개별 어휘에 임의적으로 적용되어서, 어두경음화의 적용규칙에 따른 발생원인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런 까닭에 어두경음화에 대한 연구는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김형규(1962, 76)는 인간 사회생활의 복잡화와 경쟁의 격화에 따라 인간의 언어도 차차 강한 발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하며, 사회의식에 따른 언중의 심리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았다. 반면에 이기문(1978, 70~73)은 어두경음화의 발생원인을 형태·음운론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는 중세국어에서 어두경음화된 어휘를 유형화하고, 원인을 phonétique impressive(격렬성의 표현), déterminant과 déterminé의 관계(복합어의 사이시옷), 음절말 불파음 ㅅ, ㄷ에 의한 역행동화로 분석했다.

이러한 어두경음화에 관한 연구는 전광현(2003a, 2003b)에서 발생시기와 지역적 분포로 관점이 확대된다. 전광현(2003a, 64~67: 125~127)은 17~18세기에 간행된 문헌을 분석하여, 제1요인인 phonétique impressive(격동적인

어사)는 16세기 경음화의 원인이 되고, 제2요인인 déterminant과 déterminé은 18세기 국어에 적용되며, 제3요인인 역행동화의 경음화는 17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전광현(2003b, 46~47: 250~251: 289~290)은 어두경음화가 남부 방언권의 공통적인 특징이며, 현재 중부 방언권에서도 큰 세력을 보이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여기서 본고가 주목한 점은 전남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어두경음화가 남부 방언권의 특징이라면, 남부방언의 한 축을 이루는 전남방언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고는 전남방언에 나타난 어두경음화를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어두경음화의 발생시기와 원인, 변화과정, 적용되는 음운론적 환경을 밝히고자 한다. 통시적 관점으로는 전남 고문헌<sup>1)</sup>에서 어두경음화된 어휘를 다른 지역 문헌과 비교하면서, 발생시기와 원인, 변화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공시적 관점으로는 『전남방언사전』에서 어두경음화된 방언형을 추출하여, 적용되는 음운환경과 특징을 해석할 계획이다.

## 2. 어두경음화의 발생과 변화과정

1) 전남 고문헌이란 전남에서 간행된 고문헌을 말한다.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고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16세기 자료 -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1563년, 전남 순천 송광사)/『蒙山和尚六道普說』(1567년, 전남 순창 취암사)/광주판 『千字文』(1575, 광주주)/『誠初心學人文·發心修行章·野雲自警序』(1577년, 전남 순천 송광사)/『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1577년, 전남 순천 송광사)

17세기 자료 - 『觀念要錄』(1637년, 전남 구례 화엄사)/선암사판 『類合』(17세기, 전남 순천 선암사)

18세기 자료 - 송광사판 『千字文』(1730, 전남 순천 송광사)/송광사판 『類合』(1731, 전남 순천 송광사)

19세기 자료 - 중간본 『女四書諺解』(1907, 전남 고흥)

중간본 『女四書諺解』는 1907년에 간행되었지만, 본고는 19세기 자료로 간주한다. 이는 중간본 『女四書諺解』를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이 반영된 문헌으로 파악한 최전승(2004, 511~565)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51-A00072)

전남 고문헌에서 어두음이 경음으로 표기된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sup>2)</sup>

- (1) ㅍ : ㅍ미 ㅍ에 감겨<1563부모은,14b> || ㅍ 한 도즈굴<1447용비가019><sup>3)</sup>  
 또 : 또 衆중생성이 이 賞상하며<1567몽유,4a> || 또 보게 한다<1447석보상,03,018a>  
 썩르- : 썩르도 아니하며<1577蒙山,5b> || 入입聲聲은 點點 더우른 ㅎ가지로  
 더 썩르니라<1446훈민언,014b>
- (2) ㅍ- : 跪 ㅍ궤<16XX선유,21a> || 王이 太子드려 나샤 ㅍ어스보려커시닐<1447  
 석보상,03,001b>  
 ㅍ : 灸 ㅍ구<16XX선유,23b> || ㅍ 쓰는 法에<1466구급방,하,087a>  
 ㅍ : 腮 ㅍㅍ<16XX선유,13a> || ㅍ 브은 병<1489구급간,목록,003a>
- (3) ㅍ : 雉 ㅍㅍ<1731송유,8a> || ㅍ의 ㅍ리에<1481두시초,06,008b>  
 ㅍ나모 : 桑 ㅍ나모상<1731송유,6a> || ㅍ나모 八百株와<1475내훈언,03,052a>
- (4) ㅍ리- : ㅍ야를 ㅍ리지 아니하며<1907여사서,01,5b> || 揚子江南을 ㅍ리샤  
 <1447용비가015>  
 ㅍ- : ㅍ단 ㅍ는 여자<1907여사서,04,36a> || ㅍ ㅍ며<1447석보상,11,025a>  
 ㅍ- (ㅍ-) : 시모의 부림 ㅍ에를 ㅍ고<1907여사서,04,12b> || ㅍ블ㅍ라  
 <1461능엄언,05,046a>  
 ㅍ- (<ㅍ-) : ㅍ ㅍ고<1907여사서,01,11b> || ㅍ름 ㅍ듯 ㅍ엿거늘<1459월일  
 석,14,060b>

(1)~(4)는 16~19세기 전남 고문헌에서 어두음이 경음으로 실현된 어휘이다.<sup>4)</sup> 그런데 이 어휘들은 15세기 관관본에서 경음으로 나타난다. 곧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고(最古)의 표기부터 어두음이 경음인 형태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두경음화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

2) 본고는 중세국어의 ㅍ계 어두자음군을 경음 표기로 간주한다. 그 근거로 이기문(1990, 47~55)을 참고하였다.  
 3) ‘||’는 문헌의 간행 지역을 구별하는 표시로 사용한다. ‘||’ 앞은 전남 고문헌의 예이고, 뒤는 관관본 또는 다른 지역 문헌의 예이다.  
 4) 예문에 제시한 어휘 이외에도 16세기 전남 고문헌에서는 ‘ㅍ리-, ㅍ름, ㅍ미-, ㅍ들-, ㅍ뎌, ㅍ, ㅍㅎ, ㅍ들(漿), ㅍ름, ㅍ디-, ㅍ리-, ㅍ이-, ㅍ가, 17세기에는 ‘ㅍ리-, ㅍ리, ㅍ- (吸), ㅍ, ㅍ이’, 18세기에는 ‘ㅍ이’, 19세기에는 ‘ㅍ- , ㅍ리- (<ㅍ리-), ㅍ-, ㅍ- (射)’가 나타난다.

긴다. 원래부터 경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경음의 발생시기를 확인하면 해결된다. 고대국어에는 평음과 유기음의 양 계열만 존재한 반면에<sup>5)</sup>,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 중기에는 평음·경음·유기음이 상관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경음은 고대국어와 15세기 중기 사이에 발생했을 것인데, 김무림(1997)은 발생시기를 14세기 이후로 판단한다. 그는 경음 발달의 기제를 불파음화로 보고, 음성으로서의 경음은 고려 초기 및 중기(10~13세기)에 파열음이 불파음화되면서 결합적 변이음으로 성립되고, 음운으로서의 경음은 고려 말기 이후(14세기 이후)에 마찰음과 파찰음이 불파음화되면서 성립된 것으로 파악한다.

김무림(1997)의 논의를 토대로 15세기에 어두 경음으로 표기된 어휘를 분석하면, 이들은 14세기 이후에 어두경음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불파음화에 의한 경음화는 선행음절의 종성(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전제하지만, 어두경음화는 선행음절을 전제하지 않는다. 경음화의 환경이 비어두음절과 어두음절로 다르다. 그리고 비어두경음화는 변화의 조건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일어나는데 반해, 어두경음화는 임의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음화의 빈도를 토대로 발생환경을 추정하면, 경음은 비어두에서 불파음화에 의해 발생하여 성립된 후에, 적용환경을 넓혀 어두에까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두경음화는 비어두에서 경음이 성립된 14세기 이후부터 15세기 중기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어두경음화는 불파음화란 음운론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어두경음화의 발생은 불파음화로 설명되지 않는다. 적용환경이 다른 만큼 발생원인도 다를 것이다. 앞선 논의에서는 어두경음화의 대표적인 원인을 phonétique impressive(격렬성의 표현)로 파악한다.(김형규 1962, 76; 이기문 1978, 70~73) 하지만 본고는 어두경음화가 발생해서 얻은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천착했다. 어두경음화에 의해 얻는 최대의 혜택은 의미분화이다. 경음 성립 이전에 어두음을 평음으로 가진 다의어가 있다면, 경음

5) 이기문(1990, 89~91)은 고대어의 자음체계에는 평음과 유기음의 양 계열만 있고, 된소리 계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성립되어 평음과 변별되면서 다의어의 의미는 분화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5세기 중기에 ‘괴<sup>6)</sup>는 ‘고양이’를, ‘피’는 ‘피’를 의미한다. 그러나 경음이 성립되기 이전의 ‘괴’는 위의 두 의미를 모두 내포했을 것이다. ‘도(웃놀이 의 도)/또(또), 바르-(바라-)/쌌르-(빠르-)’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재 전남방언에서도 어두경음화는 의미를 분화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에서는 다의어인 ‘가지’를 ‘가지(枝)’와 ‘까지(茄子)’로 구분한다. ‘감-’는 ‘감-(눈을 감다)’와 ‘깎-(머리를 감다)’로, ‘소’는 ‘소(牛)/쓰(김치·만두의 속에 채워 넣는 것)’로, ‘굽-’는 ‘굽-(曲)/끓-·꾸-(炙)’로 의미를 분화시킨다. 이와 같이 다의어를 세분화시키는 어두경음화는 한 의미의 형태에만 적용된다.

이런 까닭에 본고는 의미분화를 어두경음화의 원인으로 추가하고자 한다. 그런데 의미분화를 원인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의미분화가 어두경음화의 결과적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어두경음화가 먼저 발생하여, 평음·경음의 대립 후에 다의어의 의미가 분화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미분화가 결과적 현상이라면, 평음 형태와 경음 형태의 의미를 혼동하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 형태가 먼저 존재하고 그에 의미가 결합했다면, 형태에 의미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혼동이 야기될 것이다. 하지만 국어사 문헌이나 전남 고문헌에서 평음·경음 형태에 따른 의미의 혼동은 보이지 않으며, 평음·경음 형태에 따른 의미분화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두경음화는 의미분화를 전제로 발생한 음운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의미분화로 어두경음화된 모든 어휘를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앞선 연구들이 심리작용과 음운환경에서 원인을 찾았다면, 본고는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한 사실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제까지 추론한 내용을 (1)~(4)에 적용하면, 전남 고문헌에서 어두 경음으로 실현된 어휘는 14세기 이후~15세기 중기에 경음화된 형태이다. 그리고 전남 고문헌은 15세기 이전에 어두경음화된 어휘를 경음으로 반영한다.

다음은 15세기 관판본에서 어두경음화 과정을 보이는 어휘가 16세기 전남 고문헌에 나타난 경우이다.

6) 곧 괴 가히 뉘 뉘 類라<1461능엄언08,122b>

- (5) 쓰-(書) : 이 경을 써 닐그며<1563부모은,22b>, 寫 슬 사<1575광주천,019a> || 첫소리 아래 버터 쓰고<1446훈민언,012b>, 年月을 스티<1465원각경,03,상1,2,020b>  
 싸흠 : 속절업슨 이를 비화 싸흠 흐며<1563부모은,15a>, 霸 사흠 패<1575광주천,024b> || 請으로 온 예와 싸호샤<1447용비가,052>, 指南은 黃帝蚩尤와 사호실 제<1465원각경,09,하3,1,096a>  
 (6) 꾸지럼 : 열우니 꾸지럼은<1563부모은,16a> || 꾸지르믈<1471삼강행,총015b>, 구지라믈<1459월인석,17,084b>  
 씨비- : 百年을 텃조히 씨비느니<1577蒙山,17a> || 씨비는 根源이<1461능엄언 02,083a>, 만히 비비며<1459월인석,21,080b>

(5)~(6)은 15세기에 어두경음화를 겪은 어휘가 16세기 전남 고문헌에서는 평음·경음으로 혼기되거나 경음으로만 표기된 예이다. (5)에는 ‘스-/쓰-, 사호-/싸호-’처럼 평음과 경음이 함께 나타나며, (6)에서는 경음으로만 나타난다. 15세기 관판본과 16세기 전남 고문헌의 간행시기를 고려하면, 평음과 경음의 혼기는 전남 고문헌이 어두경음화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19세기 말까지도 ‘스-, 사호-’를 쓰고 있으므로, 전남 고문헌은 어두경음화에 대해 개신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sup>7)</sup> 평음·경음의 혼기에서 경음으로만 쓴 ‘꾸지럼, 씨비-’도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한다.

개신적인 경향은 16세기 이후에 어두경음화된 어휘에서도 확인된다.

- (7) 쓸 : 풀 쓰되<1563부모은,4a> || 쓰리 쓰틀 버혀<1541우마양,015b>  
 꾸송 : 誚 꾸송초<1575光千,42a> || 꾸송호여<1518이륜행,초,008a>  
 (8) 끓어-(燙) : 쓸흘탕<1730千字,4a> || 乳香 끓힌 트레<1542은역이,013b>  
 (9) ㅈ 씨(씨줄) : 실을 취호야 날호고 씨호야<1907여사서,03,06a> || 緯 씨위<1576신유합,上,028b>  
 쓰어니- : 악호 소리를 쓰어니여<1907여사서,03,09a> || 쓰어내여 죽이다<1586소학언,06,023b>

7) 스- : 寫 슬 사<1894무실천,014b>

사흠 : 밀연호 의론과 족보과 다툼과 사흠이<1887예수성,디도서03,09절>

- ㄴ 씹 : 사람을 씹바<1907여사서,04,45b> || 쉰 터리 썩보물<1613두시중14,020b>  
 썰 : 상하를 썰러<1907여사서,02,31b> || 檄木을 썰워<1635화포언,012b>
- ㄷ 쫓 : 빈여 쫓고<1907여사서,02,36b> || 야청과 쫓은 이룰<1703삼역총,6,025b>  
 찌-(烝) : 심강을 찌여<1907여사서,03,10b> || 蒸熱 찌는 득시 덩다<1768몽  
 유보,002b>
- ㄹ 짝 : 곡식 짝을 길너<1907여사서,02,10b> || 봄에 짝니 날 거시오<1886잡상  
 집,018b>  
 썩찌- : 안 마음이 썩찌고<1907여사서,02,10a> || 썩앗고<1852태상해,001b>

(7)은 16세기 관관본에서 어두경음화된 어휘가 16세기 전남 고문헌에, (8)은 18세기 전남 고문헌에 나타난 예이다. (9)는 16~19세기에 어두경음화를 거친 어휘가 19세기 전남 고문헌에 반영된 예이다.<sup>8)</sup> 전남 고문헌에서는 어두경음화된 어휘를 경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16세기에 어두경음화된 어휘가 16세기 전남 고문헌에 경음으로 나타난 (7)은 어두경음화의 발생지역을 추정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음운현상은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다. 음운현상의 발생과 전파과정의 특징을 고려하면, 어두경음화가 지리상 떨어진 두 지역에 동시에 적용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경기 또는 전남에서 먼저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터인데, 본고는 다음의 예를 근거로 전남에서 어두경음화가 발생했다고 추정한다.

- (10) ㅼ각 : 段 ㅼ각단<1731송유,29b>
- (11) ㄸ치- : 란을 부르면 그 환이 ㄸ침이 업실지라<1907여사서,02,57a>  
 ㅼ드리- : 아달을 ㅼ드리며 쌀을 꾸지셔<1907여사서,03,24b>

위의 예는 전남 고문헌에서만 어두경음화된 어휘이다. (10)은 18세기에 '조각'이 'ㅼ각'으로 나타난 예인데, 어두음 ㅼ는 17세기 초기부터 경음으로 실현되므로 실제 발음은 [ㅼ각]이었을 것이다.(전광현 1997, 17 참고) (11)은 19세기에 '그치->ㄸ치-, 두드리->ㅼ드리-'로 어두경음화된 예이다.<sup>9)</sup> 어

8) 제시한 예 이외에도 17세기에 어두경음화된 어휘로 '꺠-'이 있으며, 18세기에는 '꽃(花), 썩(群), 쫓-'이, 19세기에는 '썰-, 썰야기, 썰안-, 쓰르-, 쫓지-'가 있다.

두경음화된 어휘는 현재 전남방언에서도 경음으로 발음되어, 어두음을 평음으로 유지한 경기방언과 차별된다. 그러므로 'ㅼ각, ㄸ치-, ㅼ드리-'는 전남 고문헌이 간행될 당시에 이미 어두경음화된 전남의 방언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남 고문헌에는 어두경음화의 과도교정 표기도 나타난다.

- (12) 썩 : 砌 썩취<16XX선유,14b> || 砌 기슭썩 취<1576선유합,上,023b>  
 ㅼ<sup>10)</sup> : 稻 ㅼ도<16XX선유,7a> || 벼 爲稻<1446훈민해,058>

'썩, ㅼ'는 '썩, 벼'의 어두음을 경음으로 표기한 예이다. '썩'은 '썩들'을, 'ㅼ'는 '벼'를 뜻하는 표기로, 국어사 문헌에서 어두음이 경음으로 표기된 적은 없다. 더구나 현대국어에서는 물론 현재 전남방언에서도 경음으로 발음하지 않는다. 곧 선암사판 『유합』이 간행될 17세기에도 '썩, ㅼ'의 어두음은 경음으로 발음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ㅼ'로 과도교정한 것은 언어사용자가 어두경음화를 과도하게 의식했기 때문이다.

국어사 연구에서 과도교정은 음운변화의 시기를 추정하는 단서로 활용된다. 하지만 어두경음화는 14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개별 단어에 임의적으로 적용되므로, 개별 단어의 어두경음화 시기를 찾지못할 불가능하다. 그러나 '썩, ㅼ'는 언어사용자가 과도교정을 할 만큼, 17세기 전남에서 어두경음화가 세력을 형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전남 고문헌에 나타난 어두경음화된 방언형과 과도교정은 전남에서 어두경음화가 크게 확대된 상태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전남 고문헌이 어두경음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16세기에 어두경음화된 어휘가 16세기 전남문헌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어두경음화는 전남을 중심으로 한 남부방언에서 발생한 것

9) 19세기에 어두경음화된 어휘로 '꺠, ㅼ'도 나타난다.(혹 만의 ㅎ 꺠이나 유익흙이 잇시리라<1907여사서,02,5b>), 이 말을 의지하면 치운 ㅼ의 중용호야<1907여사서,03,06a>) 그런데 '꺠'와 'ㅼ'는 선행어절의 중성이 관형사형 어미 '-ㄴ'로 경음으로 발음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예문 (11)의 'ㄸ치-, ㅼ드리-'와는 다른 원인에서 어두경음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10) 'ㅼ'는 원래 'ㅼ'로 'ㅼ'의 일부본인 'ㅼ'이 떨어진 듯하다.

으로 결론지어 진다.

이러한 결론은 현재 통용되는 전남방언을 근거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13) 가득하다 : 까득하다[담양·화순·영광·진도], 까득하다[전역]
- 고막 : 꼬막[전역]
- 더듬거리다 : 떠듬거리다[전역]
- 둥그렇다 : 뚱글하다[전역]
- 반듯하다 : 뽀뽀하다[전역], 뽀뽀하다[강진]
- 볶다 : 뽀뜨다[화순], 뽀뜨다[신안]
- 성나다 : 썩나다[전역]
- 슬다 : 썰다[보성·고흥·여천]
- 작대기 : 짹대기[완도], 짹대기[담양·화순·무안·신안·여수·진도·완도]
- 조금씩 : 쪼끔씩[전역]

(13)은 『전남방언사전』에서 어두경음화된 방언형을 경기방언과 비교한 예이다. 경기방언에서는 어두음이 평음인 형태를 인정하기 때문에, 위에 제시한 예는 전남의 방언형이다. 지면이 적어 몇 예만 제시하였으며, 『전남방언사전』에서 확인한 방언형은 약 661개이다.<sup>11)</sup> 『전남방언사전』에서 어두경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어휘는 약 4035개이며, 이 중에서 661개가 어두경음화된다. 전남에서 어두경음화는 약 16.4%의 비율로 일어난 셈이다.

어두경음화한 방언형의 전국적 분포도 이를 뒷받침한다.

- (14) ㄱ 가지[전남 화순·진도·해남·강진, 전북 정읍·김제, 경남 함양, 충남 서산·홍성·보령·서천, 경기 전역(연천·여주 제외), 강원 전역(영월 제외)]
- 까지[전남 전역(화순·진도·해남·강진 제외), 전북 전역(정읍·김제 제외),

11) 『전남방언사전』에서 어두경음화가 확인된 방언형과 지역적 분포는 「전남방언 자음의 음운변화 연구」(2006년도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진흥재단)의 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 외), 경남 전역(함양 제외), 경북 전역, 충남 전역(서산·홍성·보령·서천 제외), 충북 전역, 경기 연천·여주, 강원 영월]
- ㄴ 소나기[전북 정읍, 경남 울주·함양·산청·진양, 경북 전역, 충남 예산, 충북 제원, 경기 전역(가평·용진·용인·안성·이천·여주 제외), 강원 전역]
- 쏘나기·쏘내기·쏘낙비[전남 전역, 전북 전역(정읍 제외), 경남 전역(울주·함양·산청·진양 제외), 충남 전역(예산 제외), 충북 전역(제원 제외), 경기 가평·용진·용인·안성·이천·여주]
- ㄷ 분[전북 남원·옥구·임실, 충남 전역(대덕 제외), 충북 전역(보은 제외), 경기 전역, 강원 전역(영월·정선·삼척 제외)]
- 뽀[전남 전역, 전북 전역(남원·옥구·임실 제외), 경남 전역, 경북 전역, 충남 대덕, 충북 보은, 강원 영월·정선·삼척]
- ㄹ 가지[전남 화순, 전북 옥구·익산·완주·진안, 경남 밀양, 경북 전역(달성 제외), 충북 전역, 충남 전역, 경기 전역, 강원도 전역]
- 까지[전남 전역(화순 제외), 전북 전역(옥구·익산·완주·진안 제외), 경남 전역(밀양 제외), 경북 달성]
- ㄹ 두드러기[전남 장성·담양·곡성·구례·화순, 전북 전역(고창 제외), 경남·북 전역, 충남·북 전역, 경기 전역, 강원 전역]
- 뚜드러기<sup>12)</sup>[전남 전역(장성·담양·곡성·구례·화순 제외), 전북 고창]

전남에서 어두경음화된 방언형의 전국적 분포를 조사한 것이다.<sup>13)</sup> 어두경음화된 방언형의 지역적 분포는 어휘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까시(刺)’와 ‘쏘나기’는 경기·강원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로 쓰인다. ‘뽀(본받는다)’은 전남·북, 경남·북에서 주로 쓰이며, 충남·북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까지(茄子)’는 전남·북과 경남에서 주로 확인된다. 그리고 ‘뚜드러기’는 전남 전역과 전남 서해안과 인접한 전북 고창에서 나타난다.

요약하면, ‘까시·쏘나기’는 전라·경상·충청방언에서, ‘뽀’는 전라·경상방언에서, ‘까지’는 전라·경남방언에서, ‘뚜드러기’는 전남방언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두경음화의 발생지역을 적용빈도와 확산정도로 추정한다면, 어두경음화는 전남에서 발생하여 북동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어두경음화한 방언형으로 ‘뚜두럭, 뚜두룩, 뚜드럭, 뚜두룩, 뚜드래기’ 등이 있다.  
13) 『한국방언자료집』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 3. 어두경음화의 음운론적 환경

어두경음화가 전남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면, 어두경음화를 유발하는 환경에 대한 분석은 전남방언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15) ㅈ : 쫌, 쪄리-, 쪄안-, 쪄리, 꽃(花), 꽃-, 꾸미-, 꾸송, 쫌-, 쫌, 쫌, 쪄르-,  
 쪄어니-, 쫌-, 쫌-, 쫌이-(燙), 쫌, 쫌-, 쫌치-, 쫌든-  
 ㅊ : 쫌, 쫌ㅎ, 쫌(群), 쫌-, 쫌들(漿), 쫌, 쫌, 쫌롭, 쫌  
 ㅊ : 쫌디-, 쫌이-, 쫌, 쫌, 쫌-, 쫌나모, 쫌리-, 쫌, 쫌, 쫌(吸), 쫌-(洗滌),  
 쫌리, 쫌찌-  
 ㅆ : 쫌, 쫌-, 쫌-(射), 쫌-, 쫌야기, 쫌-(嚼), 쫌(씨줄)  
 ㅆ : 쫌-, 쫌기, 쫌-(<끼-), 쫌-

위의 예는 전남 고문헌에서 어두경음화된 어휘이다. 전남에서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므로, 국어사에서 어두경음화된 어휘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의 어두음절은 '경음+모음(+자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본고는 어두경음화가 적용된 자음과 결합된 모음을 기준으로 경음화 빈도를 정리하였다.<sup>14)</sup>

(16) 전남 고문헌에서 어두경음화된 자음과 결합된 모음 빈도

	단모음						이중모음						합계	
	·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ㅈ		6		3		4	1		1	3		1	1	20
ㅊ	2	2		1	1	1					1		1	9
ㅊ	3	2		2	2	1		1	1	1				13
ㅆ		1	1	2	2							1		7
ㅆ			2	2										4
합계	5	11	3	10	5	6	1	1	2	4	1	2	1	53

14) 모음의 분류 기준은 15세기 중기의 모음체계이다. 그래서 19세기에 단모음화한 'ㄱ, ㅈ, ㅊ, ㅆ'는 이중모음으로 분류하였다.

전남 고문헌에서의 어두경음화는 단모음 앞에서 주로 적용된다. 어두경음화된 어휘 54개에서 단모음(·, ㅡ, ㅣ, ㅏ, ㅑ, ㅓ, ㅕ)과 결합한 경우는 42개이고, 이중모음과 결합한 경우는 12개이다. 특히 'ㅡ, ㅏ' 앞에서 어두경음화가 자주 적용되며 'ㅓ, ㅕ, ㅗ, ㅛ'에서는 적용빈도가 낮다. 그러나 본고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문헌의 수가 적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예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조어사전』의 표제어 중에서 어두 경음을 가진 어휘를 분석하였다.

(17) 『이조어사전』에서 어두경음화된 자음과 결합된 모음 빈도

	단모음						이중모음						합계		
	·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기타
ㅈ	17	51	22	24	19	31	17	4	9	14	7	15	14	10	254
ㅊ	36	26	11	16	29	13	26		7	8	4	4	20	8	208
ㅊ	21	5	8	19	26	18	5	8	5	9	1		2	6	133
ㅆ	21	21	19	10	25	4	4	1	2	1	2	3	1	2	116
ㅆ	6	5	12	7	6	1	1	1	1		1	1	4	2	48
합계	101	108	72	76	105	67	53	14	24	32	15	23	41	27	759

『이조어사전』에서 어두음을 경음을 가진 표제어는 약 759개이다. 이때 어두음에 결합된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비율은 582 : 177이다. 그리고 단모음의 적용빈도는 'ㅡ > ㅏ > ㅑ > ㅓ > ㅕ > ㅗ > ㅛ' 순서로 나타난다.

『이조어사전』의 결과를 전남 고문헌과 비교하면, 어두경음화는 단모음 앞에서 자주 적용된다. 이것은 경음과 이중모음의 음성자질과 관련한다. 경음은 평음에 성문폐쇄음 [ʔ]를 동반한 소리이다. 후두나 조음부위를 긴장한 상태에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평음에 비해 막음이나 좁힘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sup>15)</sup> 그리고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소리이므로, 단

15) 김진규(1986, 79)는 경음을 후두나 조음부위에 긴장이 일어나므로 막음이나 좁힘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호기량(呼氣量)이 많으므로 성문 간극은 좁은 부아소리라고 말한다.

모음에 비해 발음방법이 복잡하고 발음시간도 길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발음의 용이성이나 시간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성문폐쇄음을 더하는 어두경음화는 단순한 음운구조를 지닌 '평음 + 단모음'에 적용되기 쉬웠을 것이다. '평음 + 단모음'에서 일어난 어두경음화는 평음에 성문폐쇄음의 자질만 더하면 된다. 하지만 '평음 + 이중모음'은 '평음 + 단모음 + 반모음'의 구조를 지닌다. 여기에 어두경음화를 적용하면 '평음 + 성문폐쇄음 + 단모음 + 반모음'의 복잡한 구조가 된다. 이처럼 발음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단모음 + 이중모음'에서의 어두경음화는 기피되었을 것이다.<sup>16)</sup>

자음에 따른 경음화 빈도를 보면, ㄱ>ㄷ의 빈도가 가장 높고 ㅅ>ㅆ가 가장 낮다. 그러나 본고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문헌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조어사전』의 표제어를 참고하였다. 『이조어사전』에서 ㅅ를 어두음으로 가진 어휘는 254개, ㅆ는 208개, ㅈ는 133개, ㅊ는 116개, ㅌ는 48개이다. 곧 어두경음화는 ㄱ>ㄷ>ㅂ>ㅅ>ㅆ의 빈도로 적용된다. 그런데 ㅅ>ㅆ, ㅈ>ㅊ의 빈도가 낮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ㅆ는 15세기 중기에도 ㅅ와 혼기될 정도로 경음화의 속도가 늦으며, ㅊ는 17세기 초기에야 발달한다.(이기문 1990, 53; 홍윤표 1994, 173) 그렇다면 ㄱ>ㄷ>ㅂ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자음의 조음위치와 관련된다. ㄱ(牙音)>ㄷ(舌音)>ㅂ(脣音)로, 성대에 가까운 조음 위치의 순서가 된다. 그러므로 어두경음화는 성대에 가까운 자음에 높은 빈도로 적용된다.

이제까지는 국어사에 나타난 어두경음화의 음운론적인 환경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전남에는 이 지역에서만 어두경음화된 방언형이 존재한다. 어두

16) 개별적인 단모음 앞에서의 어두경음화는 두 문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남 고문헌에서는 'ㄱ, ㄷ'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ㄱ'인 경우가 가장 낮다. 그리고 『이조어사전』에서는 'ㄱ, ㄷ, ㅌ'가 높게 나타나고 'ㄱ'인 경우가 낮다. 'ㄱ' 앞에서 어두경음화가 높은 빈도로 적용되고, 'ㄱ' 앞에서 낮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다른 단모음들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15세기 모음의 음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한영군 1997, 460~465) 그래서 개별적인 단모음에 따른 어두경음화 양상을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논외로 하였다.

경음화의 음운론적 환경을 고찰한다면, 전남에서 적용된 방언형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sup>17)</sup> 다음은 『전남방언사전』에서 어두경음화된 방언형이다.

- (18) 가풀막 : 깔끄막/까크막/깔크막/까끄막/깔끄림
- 개암 : 깨금/깨금조시/깨금
- 게으르다 : 끼웁다/끼웁하다/끼웁다/끼우르다/끼우르다/끼웁다/끼웁르다
- 고삐 : 끼뺩이/끼뺩/끼뺩/끼뺩이/끼뺩/끼뺩/끼뺩이/끼뺩
- 괴춤 : 꼴마리/꼴말/꼬짐말/꼴마리/꼬주마이/꼴말
- 구린내 : 꾸릉네/꾼내/꾸린내/꾼내/꾸렁네
- 귀뚜라미 : 꿩겜미/끼뚜라미
- 그을다 : 끼시르다/끼시르다/꾸시르다/끼시르다/끼시르다/끼시르다
- 기울다 : 끼웁다

(18)은 전남에서 어두음 ㄱ가 ㄱ로 경음화된 방언형이다. 단모음 앞에서 어두경음화된 경우는 187개이며, 이중모음 앞에서는 7개이다.<sup>18)</sup> ㄱ>ㄱ에서 후행하는 단모음의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19) ㄱ>ㄱ에서의 단모음 빈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14	ㄱ	3	ㅡ	12	ㅌ	25
중모음	ㅑ	3	ㅑ	1	ㅑ	27	ㅑ	52
저모음	ㅓ	9			ㅓ	41		

위의 표에서 의미있는 수치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비율이다. 어두음 ㄱ에 전설모음이 후행한 경우는 30개인데, 후설모음이 후행한 경우는 157개

17) 전남 고문헌에 나타난 방언형은 예가 많지 않아 논의에서 제외했다.  
 18) 이중모음 앞에서 ㄱ가 어두경음화된 예는 '꾸누다(겨누다), 깔딱깔딱(겨우겨우), 깨잘·까자·개자(과자), 팡주리·팡저리·깡지리·팡지리·깡아리(팡주리), 꿩이·꿩이·꿩이·꼬니·꿩이·꿩이·파니(꿩이), 꿩이질(꿩이질), 끈토(권투)'이다.

이다. 곧 어두음 ㄱ은 'ㄱ+후설 단모음'인 환경에서 주로 경음화된다. 그런데 'ㄱ+ㅣ'의 환경을 가진 어휘는 구개음화하여 대부분 'ㅈ+ㅣ'로 변동된다.<sup>19)</sup> 전남에서 구개음화는 17세기 중기에 발생하지만 어두경음화는 그 당시에 과도교정이 나타날 정도로 세력이 확대된 상태였다. 그래서 ㄱ>ㅈ는 ㄱ어두경음화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 (20) 당기다 : 땅기다·땅그다·땡기다  
대롱 : 떼롱  
던지다 : 땡기다·땡지다·땡기다  
데굴데굴 : 떼굴떼굴  
도랑 : 또랑·똥  
되작되작 : 띄작띄작  
두드러기 : 뚜드레기·뚜두룩·뚜드러기·뚜드럭·뚜두룩·뚜두럭  
뒤적뒤적하다 : 뽀적뽀적하다·또작또작하다  
등걸 : 똥걸나무·똥갈·똥걸·똥클·똥얼

(20)은 어두음 ㄷ가 ㅌ로 경음화된 방언형으로, 『전남방언사전』에서 100개 나타난다. ㄷ어두경음화는 ㅣ를 제외한 단모음 앞에서 적용된다. 결합된 단모음의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21) ㄷ > ㅌ에서의 단모음 빈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0	ㄱ	8	ㅡ	17	ㅌ	18
중모음	ㅐ	1	ㅑ	3	ㅓ	8	ㅕ	21
저모음	ㅓ	1			ㅗ	23		

ㄷ어두경음화에서 후행하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비율은 13:87이다. ㄷ

19) ㄱ>ㅈ로 변화한 방언형에는 '찌우르다·찌울르다·찌올다(기올다), 째다(깎다), 찌우똥찌우똥·찌웃찌웃·찌그등찌그등·찌우똥찌우똥(기우똥기우똥), 찢춤하다(길쭉하다), 찢드란하다(기다랗다), 찢(길)' 등이 있다.

어두경음화도 후설 단모음과 결합한 환경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그런데 'ㄷ+ㅣ'에서는 어두경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ㅣ, ㅌ+ㅣ'가 구개음화되어 '지, ㅈ'로 변동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ㄷ구개음화한 어휘가 『전남방언사전』에 풀이된 경우가 없어 'ㄷ>ㅈ'는 확인되지 않는다.

- (22) 박쥐 : 뽀쥐·뽀쥬·뽀쥬·뽀쥬·뽀쥬·뽀쥬·뽀쥬·뽀쥬·뽀쥬·뽀쥬  
백여우 : 뽀여우  
버리다 : 뽀다·뽀지다·뽀르다·뽀리다·뽀다·뽀리다·뽀리다  
본받다 : 뽀보다·뽀따다·뽀팔다·뽀받다  
부수다 : 뽀숙다·뽀숙다·뽀다·뽀식다·뽀시다·뽀수다  
비둘기 : 뽀들기·뽀들쿠·뽀들기·뽀들구·뽀들기·뽀들구

(22)는 어두음 ㅂ가 ㅃ로 경음화된 방언형이다. 『전남방언사전』에서 98개 나타나는데, 이중모음 앞에서 어두경음화된 경우는 '병아리'<sup>20)</sup> 뿐이다. ㅂ>ㅃ로 변동될 때에 결합된 단모음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23) ㅂ > ㅃ에서의 단모음 빈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13	ㄱ	0	ㅡ	0	ㅌ	28
중모음	ㅐ	0	ㅑ	0	ㅓ	10	ㅕ	26
저모음	ㅓ	1			ㅗ	19		

ㅂ>ㅃ는 단모음 'ㅣ, ㅐ, ㅑ, ㅓ, ㅗ, ㅛ' 앞에서만 확인되며,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비율은 14:83이다. 어두음 ㅂ도 후설 단모음이 후행할 때에 주로 경음화된다. ㅡ 앞에서는 ㅂ어두경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17세기 후기에 발생한 원순모음화에 의해 '브'부'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ㅂ>ㅃ는 'ㅐ, ㅑ, ㅓ' 앞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20) 뽀가리/뽀아리/뽀갱이/뽀아리/뽀아리/뽀애기/뽀아기(병아리)



- (24) 사납다 : 싸납다·싸넙다·싸늑다  
 셀쫌하다 : 썰콩허다·썰크롬허다·썰초롬허다  
 생(生) : 썰  
 서캐 : 썰까레·썰끄레·씨·씨까레·썰·썰까리·썰케·씨까리  
 세계 : 썰계  
 소나기 : 썰낙비·썰내기·썰다리·썰내기·썰낙때기  
 수염 : 썰염·썰염  
 슬다 : 썰다  
 시래기 : 썰렉·썰라구·썰가리·썰라리·썰래기·썰레기·썰래기

(24)는 어두음 ㅅ가 ㅆ로 경음화된 방언형으로, 『전남방언사전』에서 117개 나타난다. ㅅ > ㅆ는 단모음이 후행하는 환경에서만 적용된다. 어두음 ㅅ가 경음화될 때에 결합하는 단모음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25) ㅅ > ㅆ에서의 단모음 빈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14(8)	ㄱ 0	ㅡ 4	ㅈ 20
중모음	ㅑ 2	ㅓ 1	ㅕ 16	ㅊ 10
저모음	ㅕ 30(23)		ㅗ 20	

어두음 ㅅ가 경음화될 때에 후행하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비율은 47:70이다. 그런데 ㅅ어두경음화에는 접두사 생(生)<sup>21)</sup>과 시(媿)<sup>22)</sup>가 결합한 파생어가 상당수 포함된다. 괄호 안의 숫자는 생(生)과 시(媿)의 파생어 개수이다. 접두사 생(生)과 시(媿)를 한 어휘로 간주하여, 전설·후설모음의 비율을 정리하면 17:70이 된다. 곧 ㅅ > ㅆ도 후설 단모음이 어두경음화의 적용 환경임을 확인시켜 준다.

21) 썰탱이·썰겻·썰눔(썰겻), 썰고기·썰괴기(썰고기), 썰고상(썰고생) 등이 있다.

22) 썰누(시누이), 썰아제·썰동생·썰동상·썰아자씨·썰아제·썰아잡씨(시동생), 썰숙(시숙) 등이 있다.

- (26) 자르다 : 짜리다·짱그르다·짱그다·짱그르·짱르다·짱글다·짜리다·짱크다  
 저기 : 썰기  
 조각 : 썰각·썰가리  
 줄기 : 썰더리·썰데기·썰거리·썰기  
 즈 : 썰·썰  
 질기다 : 썰다·썰기다·썰굽다

(26)은 어두음 ㅅ가 ㅆ로 경음화된 방언형이며, 전남방언에서 152개 찾았다. ㅅ > ㅆ도 단모음이 후행하는 환경에서만 적용된다. 어두음 ㅅ가 ㅆ로 경음화될 때에 결합하는 단모음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27) ㅅ > ㅆ에서의 단모음 빈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35	ㄱ 0	ㅡ 1	ㅈ 14
중모음	ㅑ 0	ㅓ 2	ㅕ 27	ㅊ 45
저모음	ㅕ 0		ㅗ 28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앞에서 어두음 ㅅ가 경음화되는 비율은 37:115이다. 주목할 만한 모음은 ㅣ이다. 어두음 ㅅ는 전설모음 ㅣ 앞에서 어두경음화되는 빈도가 높다.

결합된 모음에 따른 경음화 빈도를 검토하면, 전남방언에서 어두경음화가 적용되는 음운론적 환경은 후설 단모음이다. 어두경음화는 단모음 ‘ㅣ, ㅡ, ㅓ, ㅗ, ㅕ, ㅊ’ 앞에서 주로 적용되며, 19세기 이후에 단모음화한 ‘ㅑ, ㅕ, ㅗ, ㅊ’에 적용된 예는 65개에 불과하다. 전남방언의 모음에 따른 경음화 빈도는 앞에서 고찰한 국어사의 결과와 일치한다. 사실, 국어사에서는 15세기 국어의 단모음 체계인 7모음을 기준으로, 전남방언에서는 현재 단모음 체계인 10모음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운론적 환경이 단모음 ‘ㅣ, ㅡ, ㅓ, ㅗ, ㅕ, ㅊ’인 것은 어두경음화가 19세기 이전에 전남방언에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국어사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어두경음화의 적용환경이 단모음인 까닭은 경음의 음성자질 때문이다. 경음은 평음에 성문폐쇄음의 자질을 동반한다. 그래서 이중모음보다는 단순한 구조인 단모음이 후행하는 환경에서 높은 빈도로 적용된다.

전남방언에서 주목할 점은 ‘ㄱ, ㄷ, ㅂ, ㅅ, ㅈ’가 후설모음 앞에서 주로 어두경음화된다는 사실이다.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비율은 141 : 512이다. 이 현상도 경음의 음성자질에 기인한다. 경음은 발음하는 내내 성대를 긴장시켜야 한다. 그래서 성대와 조음거리가 가까운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일 때보다 발음하기가 쉽다. 곧 발음의 경제성이 그 이유다. ‘경음 + 후설모음’이 ‘경음 + 전설모음’보다 발음하기 쉽기 때문에, 어두경음화는 ‘평음 + 후설모음’에 자주 적용된다.

위에서 모음을 분석했다면, 이제는 어두경음화된 자음의 특징을 고찰할 차례이다. 우선 『전남방언사전』에서 어두경음화가 가능한 대상 어휘를 추출하고, 그 중에서 어두경음화된 빈도를 정리한 표이다.

(28) 어두경음화된 자음의 빈도

어두경음화의 종류	『전남방언사전』 대상 어휘	빈도	비율(%)
ㄱ→ㄱ	985	194	19.7
ㄷ→ㄷ	661	100	15.1
ㅂ→ㅂ	754	98	13
ㅅ→ㅅ	814	117	14.4
ㅈ→ㅈ	779	152	19.4

전남방언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어두경음화된 자음은 ㄱ이며, 가장 낮은 빈도의 자음은 ㅂ이다. 경음화 빈도에 따라 자음을 배열하면 ㅅ > ㄱ > ㄷ > ㅅ > ㅂ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는 자음의 조음위치와 비례한다. 곧 ㄱ(연구개음) > ㅅ(경구개음) > ㄷ(설단음) > ㅅ(설단음) > ㅂ(양순음)이다. 이것은 국어사에서 어두경음화된 자음의 비율과 맥을 같이한다. 국어사에서는 경음의 발

달시기가 늦은 ㅅ·ㅈ를 제외하고 ㄱ > ㄷ > ㅂ의 빈도로 적용되며, 전남방언에서는 ㄱ > ㅅ > ㅅ > ㄷ > ㅂ의 빈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전남방언에서는 어두음이 성대에 가까운 자음일수록 경음화되는 빈도가 높다. 이 결과도 모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음의 특성이 원인이다. 경음은 성대를 긴장한 상태에서 시간마저 길게 발음하기 때문에, 성대와 조음거리가 먼 양순 경음을 발음하는 데에는 노력이 많이 든다. 반면에 연구개 경음은 조음거리가 가장 가까운 덕택에 발음하기가 쉽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두경음화는 성대와 가까운 자음이 후설 단모음과 결합한 환경에서 높은 빈도로 적용된다.<sup>23)</sup> 이러한 적용환경은 발음의 경제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성대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자음일수록 조음하는 거리가 가깝고, 결합되는 모음이 후설 단모음일 때에 발음하는 시간이 짧다. 그러므로 어두경음화는 경음화된 후에도 발음하기 쉬운 환경에 자주 적용된다. 사실 어두경음화는 평음을 경음으로 발음해서 의미나 음성을 뚜렷하게 만드는 이화현상에 속한다. 발음의 경제성과는 상반되는 음운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경음화가 적용되는 환경은 발음의 경제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맺음말

이제까지 본고는 전남방언에 나타난 어두경음화의 역사성을 고찰하였다. 전남에서 간행된 문헌과 『전남방언사전』에서 어두경음화된 어휘를 추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어두경음화의 발생시기와 원인, 변화과정, 적용되는 음운론적 환경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어두경음화는 14세기 이후~15세기 중기에 발생하며, 그 원인은 의

23) 여기서 어두경음화와 비어두경음화의 음운론적 환경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2. 어두경음화의 발생과 변화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음운현상은 발생원인과 적용되는 양상, 환경이 다르다. 그래서 '성대와 가까운 자음+후설 단모음'이란 어두경음화의 음운론적 환경이 그대로 비어두경음화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미분화이다. 경음은 14세기 이후에 성립되므로, 어두경음화는 14세기 이후에 발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두경음화가 성립되면서 얻게 되는 혜택을 의미의 분화라고 판단했다.

둘째, 어두경음화는 전남을 중심으로 한 남부방언에서 발생한다. 전남 고문헌은 어두경음화를 반영하는 데에 개신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전남에서만 어두경음화된 방언형과 과도교정표기가 확인되며, 현재 전남방언에서도 어두경음화되는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셋째, 어두경음화는 후설 단모음 앞에서 주로 적용된다. 발음의 경계성이 그 원인이다. 경음은 후두가 긴장한 상태에서 내는 소리이다. 그래서 후두와 조음거리가 먼 전설모음이거나 발음하기 어려운 이중모음이 후행하는 환경에서는 적용되는 빈도가 낮다.

넷째, 어두경음화는 조음위치가 성대와 가까운 자음일수록 적용되는 빈도가 높다. 어두 자음별 경음화 빈도는 ㄱ > ㅈ > ㅊ > ㄷ > ㅌ이다. 이 또한 경음의 음성자질에 기인한다. 양순음보다는 연구개음이 성대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경음화되는 빈도가 높다.

그런데 본고의 논지가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두경음화가 일어난 다른 지역의 방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방언과 경상방언을 고찰한다면, 어두경음화의 정확한 발생지역과 전파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주제어 : 전남방언, 어두경음화, 발생시기, 발생원인, 발생지역, 음운론적 환경.

## 참고문헌

- 김무림(1997), 「경음의 음운사」, 『국어국문학』 제119집.
- 김종택(2002), 「어원추정에서 본 경음의 발생」, 『국어교육연구』 제34집.
- 김진규(1986), 「국어 경음의 변별적 기능에 대하여」, 『어문연구』 통권 제49호.
- 김형규(1962), 『국어사연구』, 일조각.
- 서보월(1981), 「동기적 기능에 의한 경음화 현상」, 『문학과 언어』 제2집.
- 서영석(1993), 「경음의 음운사적 연구」, 『동악어문논집』 제28집.
- 이기갑(1986), 『전라남도의 언어 지리』, 국어학 총서 11.
- \_\_\_\_\_(1998), 「전남 방언의 개관」,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 이기문(1978), 『16세기 국어의 연구』, 탑출판사.
- \_\_\_\_\_(1990), 『국어 음운사 연구』, 국어학 총서 3.
- 전광현(1997), 「근대국어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국립국어원.
- \_\_\_\_\_(2003a), 『국어사와 방언 1』, 월인.
- \_\_\_\_\_(2003b), 『국어사와 방언 2』, 월인.
- 정승철(2003), 「어두자음군의 경음화와 격음화」, 『한국문화』 제32집.
- 최명옥(1997), 「국어의 통시음운론 개관」, 午樹 田光鉉·宋敏 先生の 華甲을 기념하여 『국어사연구』, 태학사.
- 최전승(2004),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역락.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영균(1997), 「모음의 변화」, 午樹 田光鉉·宋敏 先生の 華甲을 기념하여 『국어사연구』, 태학사.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Ⅰ)』, 태학사.

## The Word-initial tensification of Jeollanamdo dialect

Wee Jin

---

---

위진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500-894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 두암그린파크 102-704

전자우편 : baezangi@hanmail.net

---

---

This research aims to prove the beginning, cause, phonetic environment of Word-initial tensification.

Word-initial tensification originated gradually from the beginning of tension sounds to modern consonant system. And there is possibility that Jeonnam is the birthplace of the word-initial tensification. The first evidence that suggests this can be found in that the Jeonnam tensification stage was 16C, the stage of tension sound was 14C. Secondly, there were three types of variation consisting of: the pre-existing record of tensification form, the transient form, and the hyper-correction form. These three types show that tensification already progressed to notice by speakers in Jeonnam dialect. Finally, the current Jeonnam dialect tensification appears with a high frequency.

Meanwhile, the word-initial tensification environment connects with distant of place articulation. Tension sound occurs with tension of larynx. If there is long distance between larynx and place articulation, that means low-economical efficiency. Back simple vowel, vowel connected with [g] as word-initial consonant, is closed by larynx therefore there were high frequent word-initial tensification.

Key word : Jeollanamdo dialect, Word-initial tensification, tension sound, the beginning of Word-initial tensification, the cause of